

The background features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modern campus. At the top, several students are shown working at desks with laptops. On the left, a student is gesturing while talking to another. On the right, a student is holding a coffee cup. At the bottom, a group of students is gathered around a table, some holding tablets and others looking at a laptop screen. The entire scene is rendered in a clean, minimalist style using only blue and red outlines and fills.

개방공유캠퍼스 학생위원회, 새로운 학생교류의 미래를 열다

by 개방공유캠퍼스
학생위원회

**연세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은
지난 2월 4일 연세대-포스텍
양교 학생들이 연합하여 구성한
'개방공유캠퍼스 학생위원회'의
발족식을 개최하였습니다.**

**개방공유캠퍼스 학생위원회,
다같이 만나볼까요?**



안녕하세요, 개방공유캠퍼스 학생위원회 구성원을 소개합니다.



오신영
연세대학교
생활디자인학과 18



김지섭
연세대학교
국문학과 16



이다은
포항공과대학교
기계공학과 18



개방공유캠퍼스 학생위원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.

개방공유캠퍼스 학생위원회란 연세대학교와 포스텍 간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교류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학생 조직입니다. 2018년 양교의 개방공유캠퍼스가 선언된 이후로 학점교류, 분과별 연구 등의 교류가 이루어졌으나, 학생들이 더욱 다양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하고자 올해 공식 출범하였습니다.

두 차례 진행되었던 청소년 진로탐색 멘토링 연합봉사 활동과 제1회 연세대-포스텍 아이디어톤의 성공적인 개최를 발판으로 삼아, 개방공유캠퍼스의 가치를 담아 양교 학생들의 관심사를 충족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, 학 내외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.



제1회 연세대-포스텍 아이디어톤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유가 궁금합니다.

YPI는 팀별 아이디어이션을 통해 사회문제를 함께 탐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학생교류 프로그램입니다. 미래사회의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하고, 그 과정에서 대학 간 교류와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개방공유캠퍼스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. 양교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과 관심을 바탕으로 사회를 바라보며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.

특히 제1회 YPI의 주제를 글로벌한 “코로나 일상에서의 사회문제 해결”로 설정해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설정하고, 그에 대한 접근과 해결방식에 대해 참가자에게 자율성을 많이 부여했는데, 이는 기존의 학생교류 프로그램과 크게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.



YPI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 본 소감이 어떤가요?

이번 프로그램의 큰 성과는 **비대면 상황에서의 새로운 교류 환경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.** 그 동안 연세대학교와 포스텍 학생들은 지리적 거리 때문에 만남이 쉽지가 않았습니다. 공통개설과목 조모임을 하기 위해 포스텍 학생들이 기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해야 했으며, 앞서 진행된 연합봉사 활동도 긴 이동 시간이 문제시되곤 했습니다.

코로나19로 인해 면대면의 만남은 어려워졌지만, 오히려 먼 거리의 소통과 교류가 익숙해졌습니다. 더하여 이번 행사에서는 **모든 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해** 참여의 장벽을 낮출 수 있었고, 이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해졌습니다.



이 밖에도 기존에 진행하던 교류 행사가 이미 존재하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이었다면, 이번 기획에서는 **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**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.

양교 학생 총원 60여 명이 기본 2:2 비율로 팀을 구성해 총 15팀이 참가하였는데, 팀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신청 후 인지성향검사를 통해 낯선 학생끼리 팀을 구성했습니다.

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진행한 설문에서 **‘이렇게 팀워크가 잘 맞는 것은 처음이었다’**고 응답을 해 주신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.



앞으로 개방공유캠퍼스, 그리고 대학혁신 측면에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?

3년째 연세대학교와 포스텍의 학생교류를 기획, 참여하며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. 다만 아쉬운 것은 양교 학생 간 비율을 유지하며 행사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으며, 이로 인해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.

양교가 위치한 지역의 지리적 특성, 서로 다른 RC 문화, 교내 분위기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참 많습니다. 양교 학생들이 교류 전반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함께 적극적으로 마련해주시고, 늘 그래왔듯이 학생들의 활동을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.)



**'개방공유캠퍼스 학생위원회'는
연세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과
함께 합니다.**

**앞으로도
다양한 학생교류 프로그램의 중심이 될
'개방공유캠퍼스 학생위원회'의
다양한 활동을 기대해주세요~**

